

‘지역활력타운’ 구축 본격화 ‘농업이 강해지는 도시 남원’

순창군, 전북자치도·국토부·복지부 등 7개 기관과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순창군이 ‘지역활력타운(순창 행복플러스타운)’ 조성사업을 본격화하며,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정주단지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최근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총 7개 기관과 함께 ‘순창 지역활력타운’ 조성을 위한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인 사업 추진 단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중앙정부는 순창군과 전북도가 수립한 사업계획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게 되며, 사업 성과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각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 관리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순창군과 전북도는 사업부지 확보, 지방비 편성, 입주자 모집 등 사업계획을 이행하는 데 힘을 쏟으며, 유익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문제 발생 시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지역활력타운(순창 행복플러스타운)’은 순창읍 순화리 720번지 일원



순창군이 ‘지역활력타운(순창 행복플러스타운)’ 조성사업을 본격화하며,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정주단지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38,605㎡ 부지에 총 254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단독주택 20호, 공공임대주택 40세대 총 84세대의 주택을 비롯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청년 창업지원 공간 등 주거와 복지, 일자리가 통합된 미래형 생활 인프라가 함께 조성된다.

특히 이 사업은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다양한 계층의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사회의 활력을 회복하는 것을 목

표로 한다. 고령층의 안정적 생활 기반을 제공함과 동시에 청년과 귀촌 인구의 유입을 촉진하는 지속가능한 정주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영일 군수는 “이번 협약은 중앙과 지방이 함께 손잡고 순창의 미래를 그리는 역사적인 출발점”이라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 산타축제’ 역대급 흥행 성공

32만명 방문 8억2700만원 매출

2025 임실 산타축제에 전국 각지에서 32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 또다시 흥행 기록을 갈아치우며 대한민국 대표적 겨울 축제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군은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임실치즈테마파크 일원에서 열린 ‘2025 임실 산타축제’에 전국에서 32만3000여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5일간 치러진 산타축제 방문객 수인 31만8000여명을 넘어선 수치로 축제 기간을 하루 단축한 것을 감안하면 더욱 고무적인



성과다. 덩달아 임실N치즈와 대형 음식점, 눈썰매장, 푸드트럭, 입점 부스 등 총 매출액도 8억2,700만원으로 잠정 집계되며,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개막식 축하공연으로 마련된 씨야 출신 가수 이보람의 무대는 감미로운 목소리로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

으며, 27일에는 걸그룹 라잇썸과 가수 사이의 공연이 이어져 젊은 층과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며, 특별무대를 중심으로 많은 인파가 몰렸다.

아이들과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축제 기간 내내 운영됐다. 대형·소형 눈썰매장이 함께 마련돼 연령대에 맞는 체험이 가능했으며, 인공 빙어 잡기 체험장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빙어를 잡고 현장에서 조리된 빙어튀김을 맛보는 등 겨울 축제의 즐거움을 만끽했다.

이와 함께 치즈컬링, 플로팅볼 눈싸움, 가족 트리 만들기, 치즈케이크 만들기, 초코공룡 체험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이 운영돼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체류 시간을 늘렸으며, 선물 증정 이벤트도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친환경 쌀 소비 지원으로 농가·외식업체 ‘상생’

순창군은 관내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외식업체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친환경 쌀 소비 장려금 지원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2025년 사업 추진 실적에 따르면 음

식점과 집단급식소 등 28개소를 대상으로 친환경 쌀 총 2,415포(20kg 기준, 약 3,600만원 상당)의 공급을 완료했다. 본 사업은 시중 일반 쌀보다 가격이 높은 무농약 인증 이상 친환경 쌀을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차액을 포당 최대 1만 5천원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외식업체에는 원가 부담 완화와 경영 안정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하고 품질 높은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지원 대상은 요양시설 등 공공급식처를 비롯해 지역 내 일반 음식점과 소규모 사업장까지 폭넓게 확대돼 있으며, 참여 업체 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순창=이양원 기자

시, 올해 농업 분야 가시적 성과... 지속가능 농업·농촌 실현

남원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농업인의 소득안정망 확충, 농지 행정 효율화,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강화, 농촌 인력난 해소 등 농업 전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실현해 가고 있다.

특히, 공약사업인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90% 확보, 농촌인력 지원 도입 확대시는 공약사업인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2025년 90억원 조성하고 2026년 본예산에 10억 원을 편성하여 현재까지 총 100억 원을 확보하고, 2024년 쌀 가격 하락에 신속히 대응, 8,134농가에 17억 6,500만원을 지급해 농가경영 안정과 소득 보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으며, 가격 하락 시 차액을 지원하는 다량 품목에 고구마를 포함한 22개 품목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인·농가 복지 수준을 강화해 대대 지원하여 소외되는 여성농업인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다. 농지전용·일시 사용 허가 등 총 543건의 민원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며 농지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농지대

또한 여성농업인에게 인당 13만원을 지원하는 생생카드 사업을 시 자체 사업으로 75세 이상 여성농업인으로 확대 지원하여 소외되는 여성농업인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다.

농지전용·일시 사용 허가 등 총 543건의 민원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며 농지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농지대

장 16,246필지(정비율 99.3%)를 정비해 전북특별자치도 1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3ha 이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1,277필지(47.9ha) 해제를 고시하여 지역 개발과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했다.

또한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용배수로 정비 330개소, 농로 확포장 170개소, 양수장 설치 및 개보수 23개소 등 다양한 기반시설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배수개선사업, 가뭄대응 관정 개발 등을 추진하며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농업환경을 만들고 있다.

농촌 인력난 해소, 외국인 계절근로자 2022년 50명에서 2025년 928명으로 확대 도입, 2026년도에는 시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프로그램에 참여한 농가의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전년 대비 29% 증가한 406농가에 1,203명(MOU·결혼이민·공공형)이 확대 참여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짓고, 농촌이 활기를 되찾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농업 경쟁력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농업환경 속에서 가격안정·농업복지·농촌인력·기반시설을 아우르는 종합적 정책 실행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시립예술단 연말 합동공연 개최

남원시가 연말 시립예술단 합동공연을 개최하고, 오는 2026년에는 정가공연과 상설공연, 수시공연을 연중 개최해 ‘남원의 문화 아이콘’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남원시에 따르면 2025년 시립예술단은 연말 합동공연 ‘따뜻한 울림, 하나 되는 하모니’가 12월 30일 오후 7시 청아원(남원시 민인로 92)에서 개최, 공연은 국악·농악·합창 전 분야의 성인 및 청소년 예술단이 함께하는 통합 무대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구성으로 시민들에게 위로와 울림을 전할 예정이다.

공연은 청소년농악단의 힘찬 오프닝으로 막을 연다. 이어 시립합창단은 ‘혼불’과 ‘O Holy Night’을 선보이고, 청소년국악단이 ‘사랑가’와 ‘남원산성’, ‘까투리타령’을 무대에 올린다. 청소년합창단은 ‘음악의 신’, ‘Heal The World’를 통해 감동을 더한다. 이



후 시립국악단이 ‘청의 바다’와 ‘태평무’를, 시립농악단이 ‘판굿’을 선보이고, 마지막으로 전 출연자가 함께하는 합동무대 ‘강강술래’로 공연의 대미를 장식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우수 지자체 선정

남원시가 행정안전부에서 평가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국비 4억 원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국비 지원 이전인 1~4월의 자체 발행 노력과 국비 지원 이후인 9~10월의 발행 실적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뤄졌다.

남원시는 2025년 연초부터 남원사랑상품권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발행해 전년 대비 약 200억 원 증가한 총 1,400억 원 규모를 발행했다.

또한 지난 9월 1일부터 상품권 할인율을 15%로 상향 조정해 소비 촉진에 도모했으며, 면 지역 하나로마트 15개소를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로 확대 등록해 면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남원시는 평가 17군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확보했으며, 전북에서는 남원시가 유일하게 포함됐다.

아울러 내수경제 회복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지급해 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에서도 지급 실적, 사용처 확대, 신청·지급 편의성 제고 등의 노력을 인정받아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5천만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4명 선정

임실군이 2025년 하반기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군민 체감형 성과를 창출하고,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기여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4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우수공무원은 △홍보담당관 김민우 주무관(행정 8급) △관광치즈과 문화인 주무관(행정 7급) △반려산업과 신광수 주무관(시설 6급) △환경보호과 김명수 주무관(시설 7급) 등 4명이다.

군은 선정된 우수공무원에게 12월 중 인센티브 및 상장 수여를 진행할 예정이며,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조직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발굴과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